조간 제805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음력 2월 15일)

여수 석유화학기업들 "나프타 쇼크에 공장 멈출 판"

유동성 경색·수출 제한 부작용…긴급 지원 한목소리

한병도 민주 원내대표 "추경 투입, 산업 동맥 살린다"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원가 급등과 유동성 경색, 수출 차질 등 '복합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일 처방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가격·금융·규제 전반에 걸친 패키지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GS칼텍스, 여천NCC,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주요 기업들은 나프타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로 인한 현장 애로를 공유하며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기업들은 나프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중동전쟁 사태로 나프타 가격과 프리미엄, 운임이 동시에 치솟고 있지만 제품 가격은 국제지표(MOPJ) 연동 구조와 고객사 저항으로 즉각 반영되지 못해 '래깅 효과'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유동성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나프타 단가 상승으로 신용장 개설 금액이 커지면서 은행 한도 부담이 높아졌고, 일부 거래에서는 현금 결제 조건까지 요구되며 원료 확보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가동률을 다시 끌어올리려 해도 추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입 신용장 한도 확대와 금융권 참여 유도,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특히 고객 맞춤형으로 개발되는 '스페셜티 제품'의 경우 수출이 막히면 거래선 자체가 단절될 수 있어 단순 물량 통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료 조달 구조 다변화와 정부 차원의 외교 지원 필요성도 나왔다. 기업들은 미국·유럽·동남아 등 비중동 지역에서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 지원과 함께 비축유 활용 시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나프타를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LPG 등 대체 원료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당관세 인하 조치 연장, 무역보험 및 수입보험 확대 등도 건의사항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업계는 "전용 저장탱크와 터미널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해야 한다"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구조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현장 규제 개선 요구도 이어졌는데 일부 기업은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용물 변경 시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대규모 보강 비용이 발생한다며, 2000년 이전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 적용이나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 같은 현장 건의는 곧바로 정치권 대응으로 이어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예산(4695억원)을 즉시 투입해 석유화학 산업을 지키고 여수의 일자리와 지역의 온기를 지켜내겠다"며 "막힌 산업의 혈관을 신속히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천NCC 가동률이 80%대에서 60%대로 떨어지고 '불가항력'까지 선언한 것은 산업 전반의 경고 신호"라며 위기 심각성을 짚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안 크래킹 히터에 올라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크래킹 히터는 나프타에 열을 가해 에틸렌으로 가공하는 설비다. 연합뉴스

오늘은 나눔 내일의 희망

〈1〉프롤로그

늘어나는 취약계층… 나눔이 광주·전남 지탱한다

광주지역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적 복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민간 봉사와 후원 활동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은 나눔, 내일의 희망'이라는 말처럼 작은 실천은 개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으로 이어진다. 이번 기획은 광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아울러 더 많은 참여와 확산이 필요한 이유를 현장에서 확인해본다.

1인 가구·고립 위험 확산세…돌봄 공백 우려

기초생활수급자 8만명 증가…공적 복지 한계

광주지역에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1인 가구 비율은 36.9%로, 전체 가구 10곳 중 3곳 이상이 혼자 사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1인 가구 확대와 함께 고립·은둔, 고독사 위험군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 광주 취약계층 현황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주요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1인 가구 상당수가 고령층과 중장년층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가족 기반 돌봄이 약화되면서 질병이나 사고, 경제적 위기 발생 시 이를 지탱할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다. 기존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 더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하는 '신(新)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지역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139만908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2329명이며, 생계급여 6만4909명, 주거급여 3만636명, 의료급여 4903명, 교육급여 1881명이다. 차상위계층은 1만322명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은 민간 봉사단체와 후원단체다. 광주에는 3491개의 사회복지시설(동구 304·서구 595·남구 595·북구 1039·광산구 958)과 다양한 민간 단체가 활동하며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2면으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민형배·주철현 단일화…3파전 재편

김영록·민형배·신정훈, 내일부터 3일간 여론조사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구도가 3파전으로 압축됐다.

신정훈·강기정 후보에 이어 민형배·주철현 후보도 단일화하면서 당초 다자구도였던 경선 판도가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가나다순) 등 3강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누가 최종 공천권을 따낼 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형배·주철현 후보는 1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형배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단일화는 주 후보가 민 후보를 향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 후보는 "이제 주철현의 꿈은 민형배의 꿈이고, 주철현의 비전은 민형배의 약속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단일화로 민주당 통합시장 경선 구도는 3파전으로 재편됐다.

김영록 후보는 행정 전문가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과, 민 후보는 동부권 주자인 주철현 후보와, 신 후보는 민주화 동지 강기정 후보와 각각 단일화하며 체급과 조직을 키웠다.

한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민형배·주철현 후보가 민 후보로의 단일화를 발표한 뒤 포옹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통합시장 후보에 듣는다 김 영 록 예비후보 20면